



진

은 세상을 부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별한 만능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과연, '은'은 은행(ON)을, 은(ON)은, 은(ON)을, 은(ON)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다나금융그룹의 인공지능이 그들과 함께 ON 하고

아웃

2021 BROCHURE



OK! 금융그룹



www.okfngroup.com

OK! 금융그룹

- OK! 홀딩스
- OK! 투자은행
- OK! 캐피탈
- OK! 데이터 시스템
- OK! 신용정보
- OK! F&I
- OK! INVESTMENT PARTNERS
- OK! BANK Indonesia
- OK! P2P Indonesia
- OK! ASSET
- NEW DAYS
- APRO FINANCIAL
- APRO CHINA
- YES ASSET
- PPCB
- OK Bae & Jung
- OK 금융그룹 아웃 프로백구단



02 ABOUT OK FINANCIAL GROUP
회장님 인사말
원팀연언문
History
경영진 소개

12 OK FINANCIAL GROUP AFFILIATES
사업부문
그룹현황
계열사별 자산·손익 현황
OK저축은행
OK캐피탈
해외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2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스포츠단 운영
스포츠 후원
OK배·정장학재단
사회공헌활동
사진으로 본 사회공헌활동

About OK FINANCIAL GROUP

대한민국 최초의 소비자금융그룹

금융을 뛰어넘어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글로벌서비스그룹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습니다.

'We대한민국'의 힘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장님 인사말

ONE TEAM 8 SPIRITS

History

경영진 소개

안녕하십니까. OK금융그룹 회장 최윤입니다.

“이단(Start-up·異端)에서 출발해 정통(Mainstream·正統)으로 도약하고,
정통(Mainstream·正統)에 올라선 후 새로운 이단(Start-up·異端)에 도전한다.”

지난 1999년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며 금융권의 ‘이단(Start-up·異端)’으로 출발했던 OK금융그룹은 이제 약 2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저축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정통(Mainstream·正統)’으로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로 한정된 무대를 벗어나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을 개척하며 ‘Original Korean(OK)’의 금융 노하우를 전파하며 2금융권의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많은 위험과 기회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OK금융그룹 임직원 일동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혁신하며 ‘새로운 이단(Start-up·異端)’에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OK금융그룹은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 협력 파트너, 그리고 우리 사회와 ‘원 팀(One Team)’으로 함께 하며 모두의 성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 그룹’이라는 비전 달성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고객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 OK!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도전을 이어가는 OK금융그룹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K금융그룹 회장 최윤 拜上



- 現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스쿨(OKIS) 이사장
- 現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부단장
- 現 제41대 대한체육회 이사
- 現 제24대 대한력비협회 회장
- 現 OK금융그룹 으뜸 프로배구단 구단주
- 現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부회장
- 現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 現 학교법인 휘문익숙 이사





원팀의 신념

“이단(Start-up)에서 출발하여 정통(Mainstream)을 향해, 정통(Mainstream)에 올라선 후 새로운 이단(Start-up)에 도전한다.”



원팀의 정신

- 1 너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
- 2 나는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야만 한다.
- 3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 4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다
- 5 너의 오너십의 크기가 무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 6 의사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실행은 일사분란하게
- 7 나는 절실하다, 처음 그랬던 것처럼
7-1. 나는 더 나은 방식, 더 새로운 기술을 위해 늘 깨어 있다.
- 8 이런 우리는 '원팀'이다.

원팀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우리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Rule과 Fair Play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반칙도 편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결국 해내고야 말 것이기에 우리에게 '7면 8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CSR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회에 기여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업(사명)입니다.



고객과의 약속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은 항상 '고객'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을 '열성팬'으로 만들 것입니다.



OK금융그룹의 성공 신화는 현재진행형

OK금융그룹은 국내 저축은행업·여신금융업 및 인도네시아·캄보디아 은행업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며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OK금융그룹 임직원들의 '혁신 DNA'에서 비롯됐습니다.



1998-2003

- (주)에이앤오 설립
- 프로그레스(주) 설립
- 해피레이디(주) 설립
- (주)파트너크레딧 설립
- (주)여자크레딧 설립
- 에스캐피탈(주) 설립
- 퍼스트머니(주) 설립

2004

- APLO FC 그룹 출범
- [(주)에이앤오 그룹 인수]

2007

- 그룹계열사(8개) 합병
- (주)러시엔캐시 출범
- 차세대전산 시스템(APROUS) 오픈

2008

- 아프리카파이낸셜그룹 출범
- 에스신용정보 출범

2009

- 미즈사랑(주) 인수
- 한국아이비금융(주) 인수
- 아프리카파이낸셜 CP 신용등급 A3-
- (한기평)

2010

- 러시엔캐시행복나눔클래식 개최
- (現 OK저축은행 박계리 인비테이셔널)
-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개최
- (現 연동열배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2012

- 제2항업 선포식(APRO Again)
- 중국 천진 아부로 유한공사 설립
- (업계 최초 해외 진출)

2013

- 러시엔캐시 베스피드 프로배구단 창단
- (업계 최초 4대 스포츠 프로팀 창단)
- 중국 심천 아부로 유한공사 설립
- 아프리카파이낸셜 CP 신용등급 A3+
- (한기평)

2014

- 중국 중경 아부로 유한공사 설립
- OK저축은행 출범
-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
- 아프리카서비스그룹 출범
- 아프리카파이낸셜 CP 신용등급 A2-
- (한기평)

2015

- OK저축은행 러시엔캐시 프로배구단
- V리그 우승

2016

- 인도네시아 안다라은행 인수
- (업계 최초 해외 1금융사 인수)
-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 인수
- OK저축은행 러시엔캐시 프로배구단
- V리그 2연속 우승
- 한국캐티캐피탈 인수, OK캐피탈에 합병

2017

- 아프리카파이낸셜 CP 신용등급 A3+
- (한기평)

2018

- 인도네시아 디나르은행 인수

2019

- 창립 20주년 기념 'OK금융그룹'
- 사명 변경
- OK뱅크 인도네시아 출범
- (안다라·디나르은행 합병)

2020

- OK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
- 2조 원 돌파
- OK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
- 전면 개편

2021

- 우리은행 베트남과 현지 진출
- 위한 MOU 체결
- OK캐피탈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
- (한기평 · 한신평)
- OK금융그룹 대한적십자사
- 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상' 수상
- '한국형 무공해사 전환 100'
- 캠페인 참여 선언

경영진 소개



OK금융그룹 부회장
김인환

- 현 OK캐피탈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 Univ. of Michigan MBA
-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 하나금융저축 미래기획수익단 단장
- 하나은행 중국유망기업은행장



OK금융그룹 부사장
정길호

- 현 OK저축은행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 휴먼컨설팅그룹(HCG) 부사장
- Watson Wyatt Korea 컨설턴트
- 한미은행 인사부



OK금융그룹 부사장
심상돈

- 현 아프로파이낸셜 대표이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 한국공인회계사(KICIPA)
- 우리은행
- 안동회계법인



OK금융그룹 전무
이윤수

- 현 OK인생정보 대표이사
- 부산대학교 경영학
- 세무사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OK금융그룹 전무
강경균

- 현 OK물류정보 전략기획/비즈니스 담당인원
- 한양대학교 무역학
- 중앙증권 금융센터 기획본부
- 대한종합금융 금융부 FRM본부



OK금융그룹 OK캐피탈 겸사
양일남

- 현 OK캐피탈 겸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
- 사경대학교 경영학 석사
- 하나금융투자 소비자보호총괄, 겸사총괄
- 금융감독원 강령지원장, 대부업 겸사지원장
- 금융감독원 시민금융지원실 대부업1팀장, 시민금융총괄팀장
- 금융감독원 은행경기2국 상시감사1팀, 겸사 기획팀
- 한국은행 기획부



OK금융그룹 전무
권경구

- 현 OK뱅크 인도네시아
- 계명대학교 무역학
- 성공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FO전략과정
- 건국대학교 부동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현대위스저축은행 전략기획본부장
- 삼성생명 관리팀
- 삼성금융연구소 기획조정실



OK금융그룹 전무
유영설

- 현 OK저축은행 영업본부 담당인원
- 중북대학교 경제학
- SC제일은행 기업금융 여신인사/리스크관리 및 영업지원 총괄
- SC제일은행 기업금융 전략기획 총괄 및 영업지원 담당이사



OK금융그룹 전무
편영범

- 현 OK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세라믹 공학
- 연세대학교 공학 석사/Univ. of Rochester MBA
- 삼성 KPMG 컨설팅 Partner
- Open Tide Korea 금융사업본부장
- 한국 IBM GBS 금융담당 이사
- Cap Gemini Ernst & Young 수석컨설턴트
- 삼성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



OK금융그룹 전무
김인연

- 현 OK캐피탈 IB사업1본부 담당인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사회학
- 건국대학교 부동산업경영관리 석사
- 키움증권 구조화금융팀
- 교보증권 구조화금융팀
- 대우증권 기업금융팀



OK금융그룹 전무
서운기

- 현 OK캐피탈 IB사업2본부, 기업금융본부 담당인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장
- 하나금융저축 미래기획팀 부장
- 하나은행 기업금융 경영관리실장
- 하나은행 투자기발팀 RM부장
- 하나은행 리스크관리본부



OK금융그룹 전무
신미경

- 현 아프로파이낸셜 마케팅본부 담당인원
- 서울대학교 국문학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뉴데이스 전문
- 파퓰러스 제작본부장
- 인터콤 어시시에이션 Creative Director
- 캄투게더 Creative Director/ ISMG Korea Creative Director
- 매일 기획 제작본부 제작기획팀장



OK금융그룹 전무
박용만

- 현 OK뱅크 인도네시아 은행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
- Helsinki School EMBA 석사
-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부회장 (총괄본부장)
- 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장 (총괄본부장)
- 우리은행 병해충지점장
- 우리은행 원남동지점장
- 우리은행 투자기금융부 부부장 (Investment Banking)



OK금융그룹 전무
박승배

- 현 OK캐피탈 IB사업3본부 담당인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
- 중국 칭화대학교 MBA 및 경영학 석사
- 미래에셋대우 투자기금융본부2본부장
- 하나은행 글로벌미래금융부장
- 하나은행 (China) 북경본부장
- 하나은행 ABS 팀장
- 하나은행 투자기금융부 구조화금융팀장



OK금융그룹 전무
이현배

- 현 OK저축은행 인사본부 담당인원
- 연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하나은행 본부장 / 자문위원
- 하나은행 영등포영업본부장
- 하나은행 본부장 / 여신그룹담당인원
- 하나은행 중부영업본부장

경영진 소개



OK금융그룹 PPCB겸사
나병태

- 현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PPCB) 겸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Univ. of Illinois개무관리석사(MSF)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한국은행 겸사3국/여신관리국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은행경기1국
- 금융감독원 현안사무소 수석 조사역
-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인국/대부업겸사실 팀장



OK금융그룹 상무
오근용

- 현 삼진/전진/중경
- 아프로소백대졸업유망기업 이사장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SC제일은행 국제부/국제금융부
- 영도국제은행 상무
- 우성시멘트졸업유망기업 이사장



OK금융그룹 상무
나개훈

- 현 OK캐피탈 경영관리본부 담당인원
- 연세대학교 법학
- 하나은행 압구정지점본부장
- 하나은행 남역입점금융센터장
- 하나은행 안국동지점장
- 하나은행 겸사 기획팀장
- 하나은행 인사 기획팀장



OK금융그룹 상무
강재곤

- 현 아프로파이낸셜 베트남사업 담당인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 국제금융역
- 여신조사역
- 신한은행 금천지점장
- 신한베트남은행 북부총괄 부부장
- 신한베트남은행 하이풍지점장
- 베트남 신한비나은행 비금지점장
- 베트남 신한비나은행 부부장



OK금융그룹 상무
최경민

- 현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미래디지탈본부 담당인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
- 부동정보시스템 대표컨설턴트
- KPMG 경영컨설팅 Partner
- IBM GBS 금융담당 이사
- E&Y 경영컨설팅 금융산업 수석컨설턴트
- 한국장기금융은행/KB국민은행 기업금융부



OK금융그룹 상무
왕경안

- 현 OK물류정보 홍보소프트웨어 담당인원
- 고려대학교 인문학
- Univ. of Hawaii at Manoa, M.B.A.
- 단국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경영학 석사
-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상임이사)
- SBS 편성실 스포츠, 교양, 보도 프로그램 홍보 담당
- SBS 기획실 기획 PD
- SBS 스포츠국 스포츠프로그램 제작 PD



OK금융그룹 상무
김윤이

- 현 OK물류정보 경영지원1본부 담당인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Columbia University 석사
- FuturePlay, Head of HR
- 미국 W Medical Strategy Group, Director of HR and Strategy
- GE, Organization & Talent Development Lead
- KPMG 컨설팅, 수석 컨설턴트
- SK(주) C&C 인력팀



OK금융그룹 상무
김성택

- 현 OK뱅크 인도네시아
-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국제부부장
- 한국투자증권 부동인금융본부장
- 농협중앙회 구조화금융팀
- 교보증권 구조화금융팀



OK금융그룹 상무
박종열

- 현 OK캐피탈 리스크관리본부 담당인원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 외환은행 외환부/상사부/경사부
- 보람은행 강남중기RM팀/리스크관리TF
- 하나은행 여의도지점센터 지점장/기업여신지원팀



OK금융그룹 이사
양중필

- 현 중경 증권리
- 명지대학교 중앙중문학 석사
- IBK기업은행 인사/임사/경사부
- IBK기업은행 글로벌사업부
- IBK기업은행 소주/대구/영남본부
- 한국산업단지공단(안개부 신하) 인사지역본부



OK금융그룹 이사
이장호

- 현 아프로파이낸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
- 공인행정사
- 북극산정보연구소 기획실 실장
- SC은행 카드상품팀 총괄 이사대우
- 현대카드 Credit 기획팀
- 이강파이낸스 신용리스크컨설팅
- 삼성생명 융자 기획팀



OK금융그룹 이사
왕인효

- 현 OK뱅크 인도네시아 전략기획 담당인원
- 카이스트 안철명경영학
- SC은행 카드상품팀 총괄 이사대우
- 현대카드 Credit 기획팀
- 이강파이낸스 신용리스크컨설팅
- 삼성생명 융자 기획팀



OK금융그룹 이사
이인개

- 현 OK캐피탈 IB사업2본부2부 담당인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
- 신영증권 프론티어금융부 이사
- IBK투자증권 부동인금융팀 팀장
- 하나은행/하나IB증권 투자기발팀
- LG투자증권(해남투자기금) 부동인금융팀



OK금융그룹 이사
김진영

- 현 OK물류정보 운영지원 담당인원
- 서울대학교 법학
- 하나은행 운영지원부장
- 하나은행 교육지원부장
- 하나금융저축 운영지원부장
- 하나은행 전략기획부
- 하나은행 운영지원부



OK금융그룹 이사
임영열

- 현 OK캐피탈 IB사업1본부2부 담당인원
- 경원대학교 회계학
- 삼성저축은행 기업여신담당 부장
- 서울은행저축은행 영업부장
- 태평생명경쟁 부장
- 하나은행 여신담당 부장



OK금융그룹 이사
김대호

- 현 OK캐피탈 IB사업2본부1부 담당인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 웰컴저축은행 여신본부 이사
- JT캐피탈 기업영업본부장
- 솔로몬저축은행 영업부
- 한미은행 여신영업

OK FINANCIAL GROUP AFFILIATES



사업부문
그룹현황
계열사별 자산현황
OK저축은행
OK캐피탈
해외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종합 금융그룹

OK금융그룹은 '혁신DNA'를 바탕으로 국내 저축은행업·여신금융업 및 인도네시아·캄보디아 은행업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며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늘 고객을 생각하며, 고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OK금융그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Original Korean의 정신이 살아있는 'OK'와 그룹의 부리이자 출발점인 APRO를 국문으로 표현한 '앞으로'를 결합해 탄생한 슬로건, 앞으로 OK! 이는 미래를 향해 OK와 OK금융그룹 임직원 모두가 성공을 향해 전진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OK!

OK! 금융그룹

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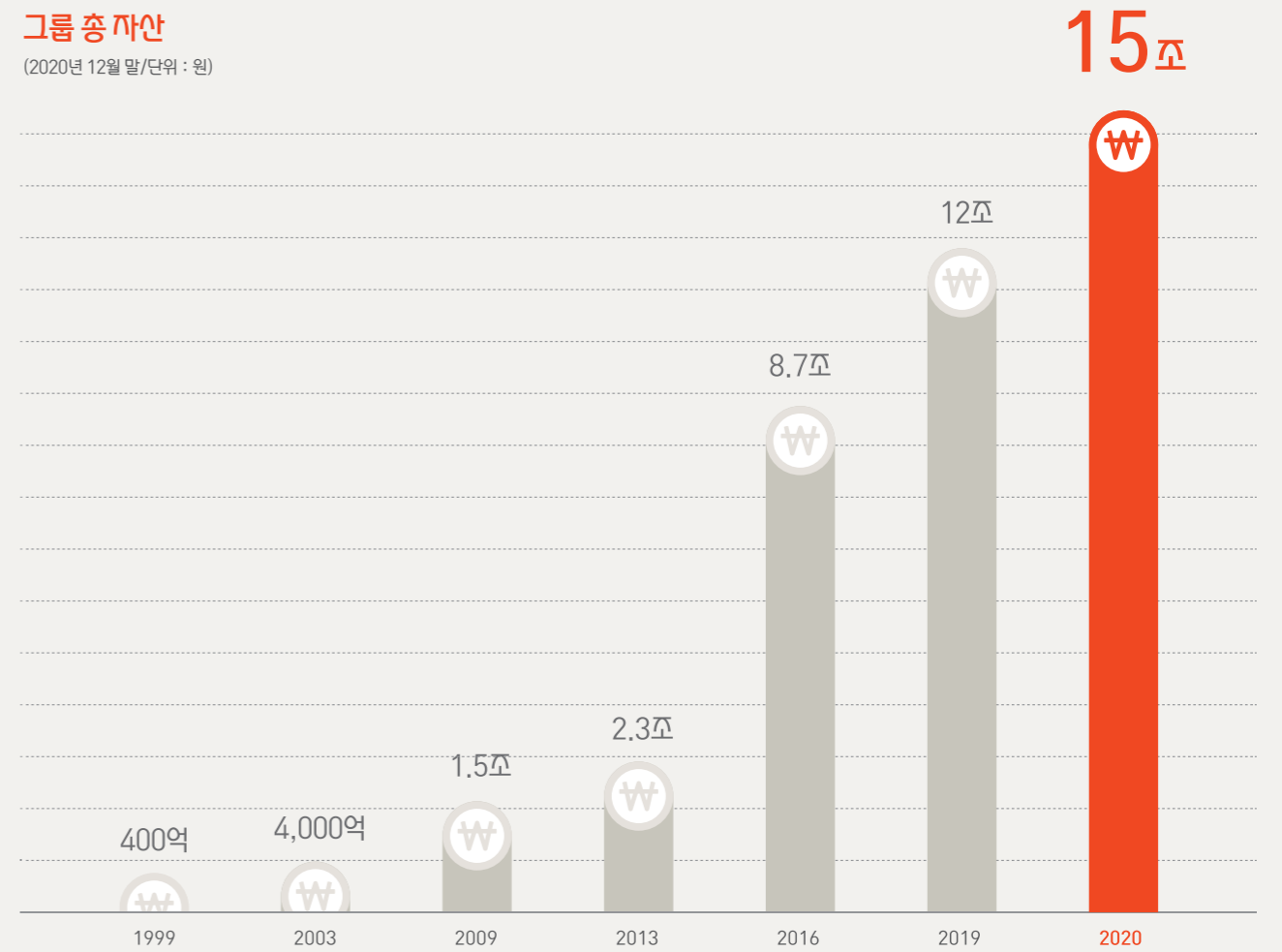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소비자금융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한 OK금융그룹은 초기 소비자금융업 한 분야에서 현재 소비자금융업을 포함해 저축은행, 캐피탈, 채권관리, 전산개발지원 등 5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K금융그룹은 끊임없는 내외적 성장과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업권에서의 혁신적인 성과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더욱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온정을 베푸는 금융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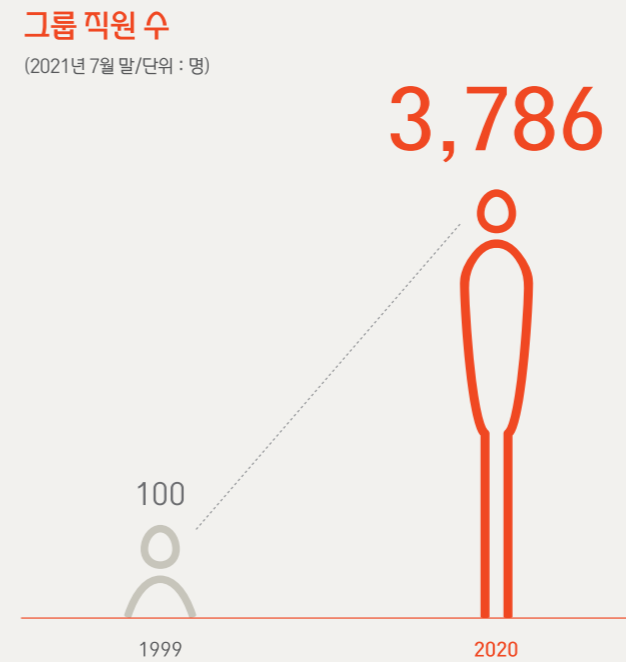
그룹 총 자산

(2020년 12월 말/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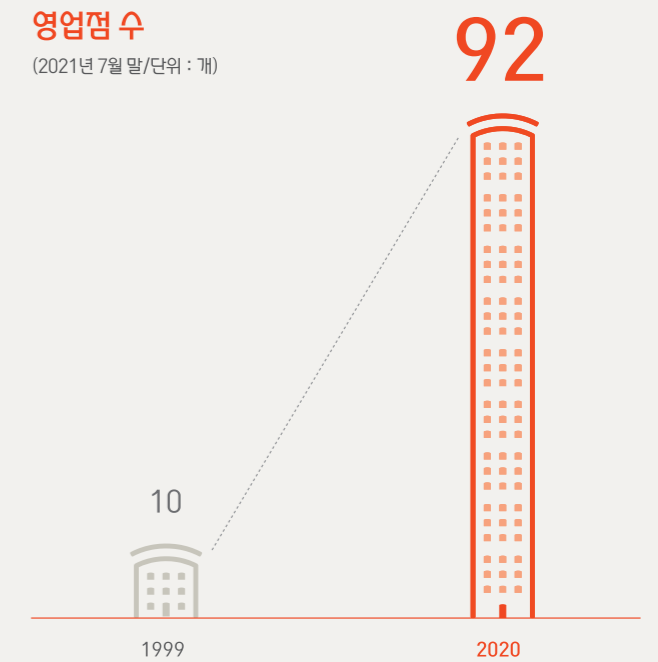
그룹 직원 수

(2021년 7월 말/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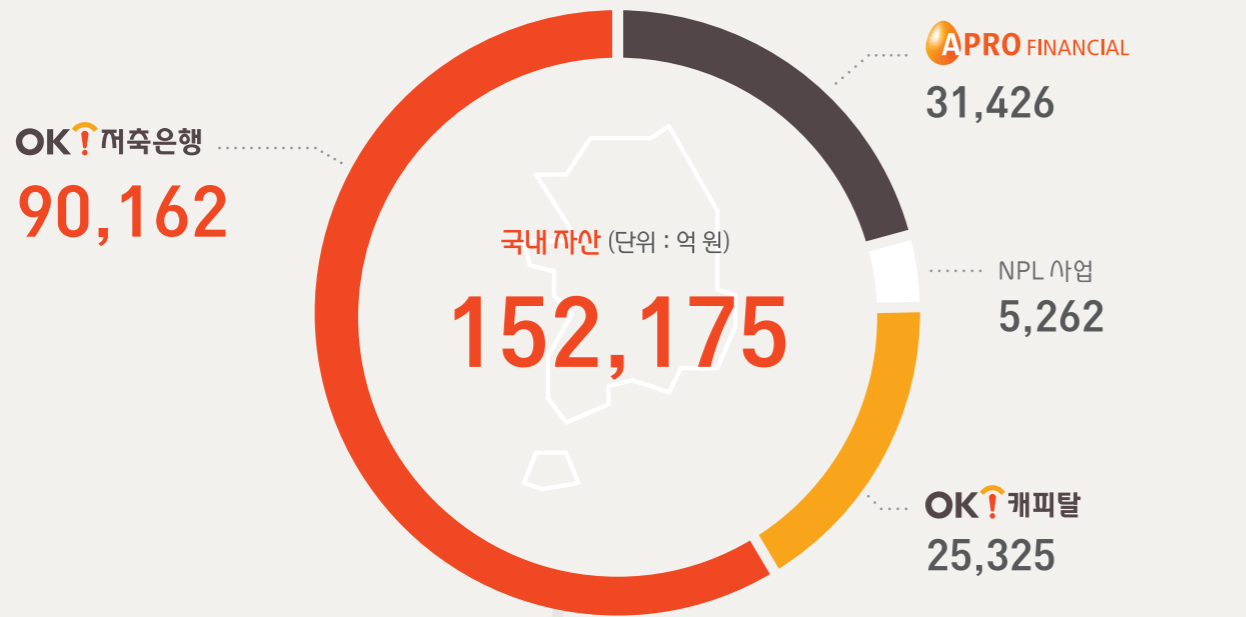
영업점 수

(2021년 7월 말/단위 : 개)



계열사별 자산·손익 현황

OK금융그룹은 OK홀딩스를 주축으로 OK저축은행, 아프리카파이낸셜대부, OK캐피탈, OK신용정보, OK데이터시스템, OK에프앤아이, 예스자산대부, OK인베스트먼트 등 8개 계열사와 중국 내 3개 법인 및 캄보디아 PPCB와 OK뱅크 인도네시아를 운영하며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별 자산·손익 현황



OK!저축은행
1,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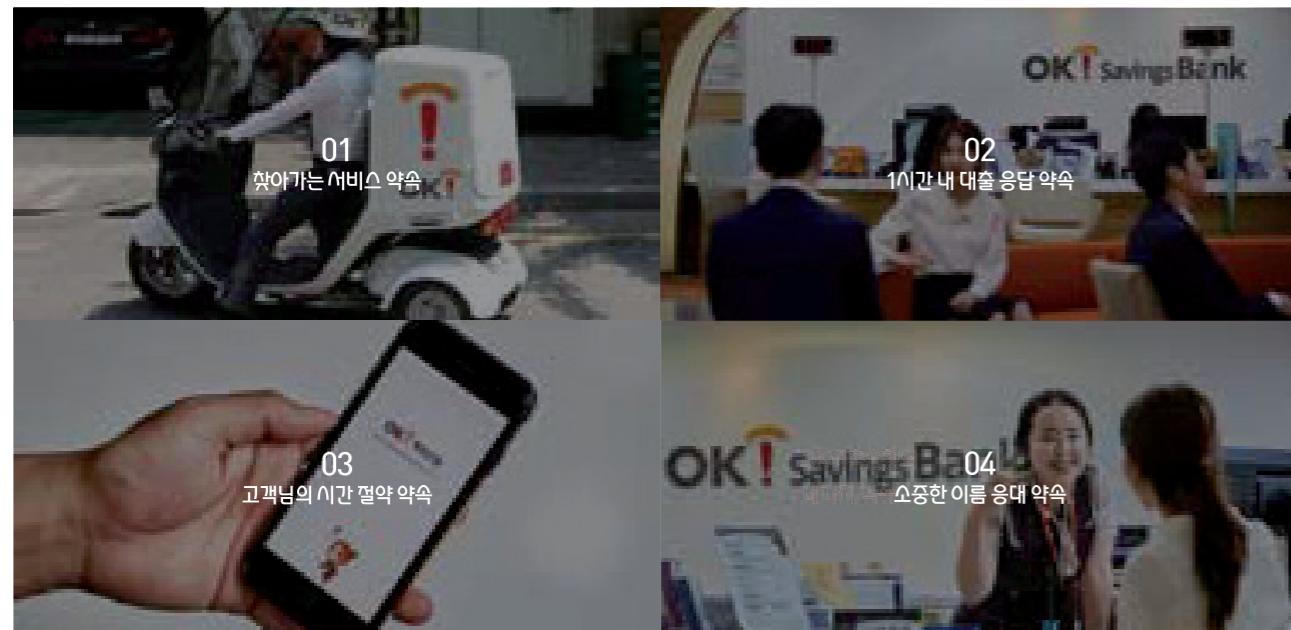
OK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이 2014년 7월 예주저축은행,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새롭게 태어난 저축은행입니다.



OK저축은행은 출범 이후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며 단기간 내 업계 선두주자로 도약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서민금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및 채널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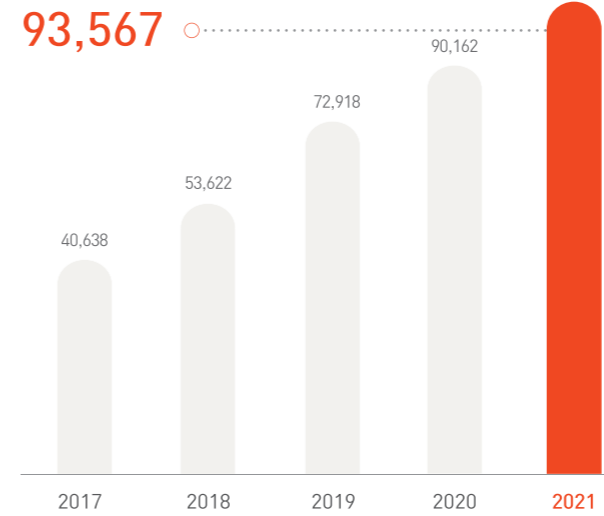
총 자산	고객 수	자산 순위	BIS 비율
9조 3,567 억 원	68만 8,093 명	2 위	11.76%

(2021년 3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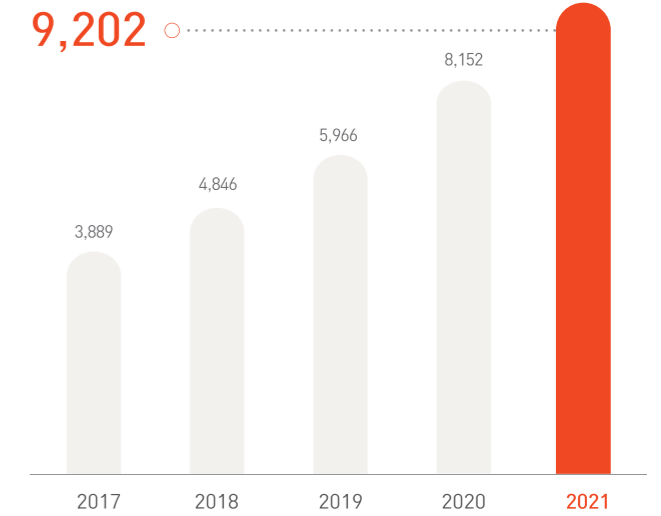


OK저축은행 경영지표 (2021년 3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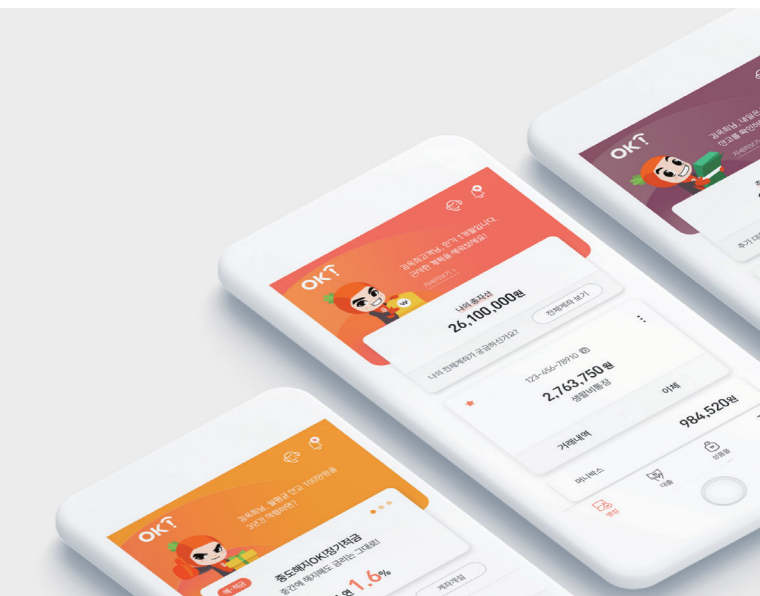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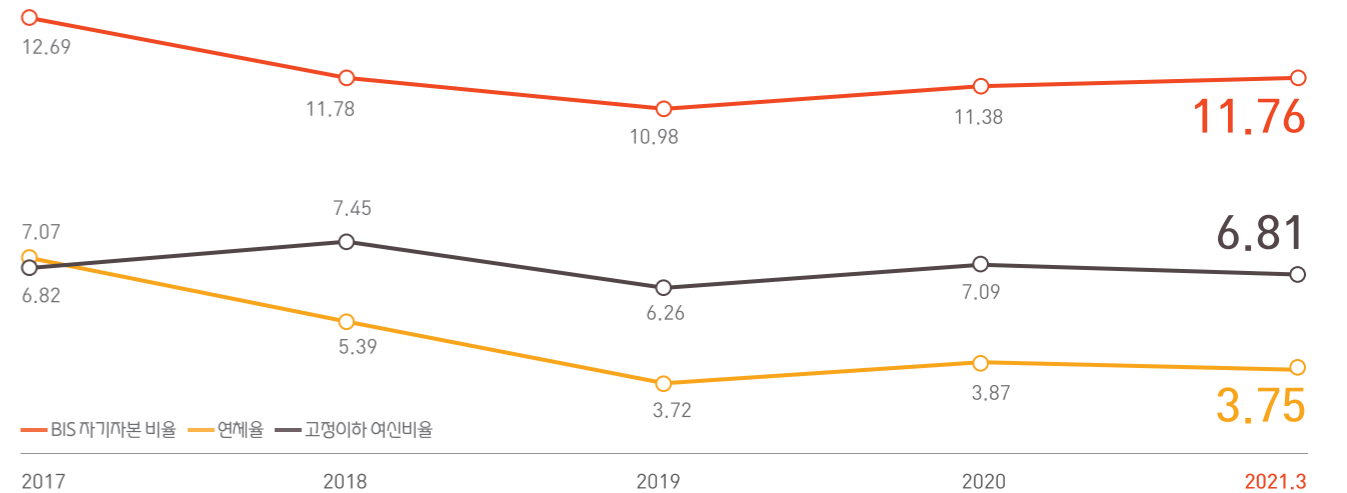
자산 추이 (단위 : 억 원)



자본 추이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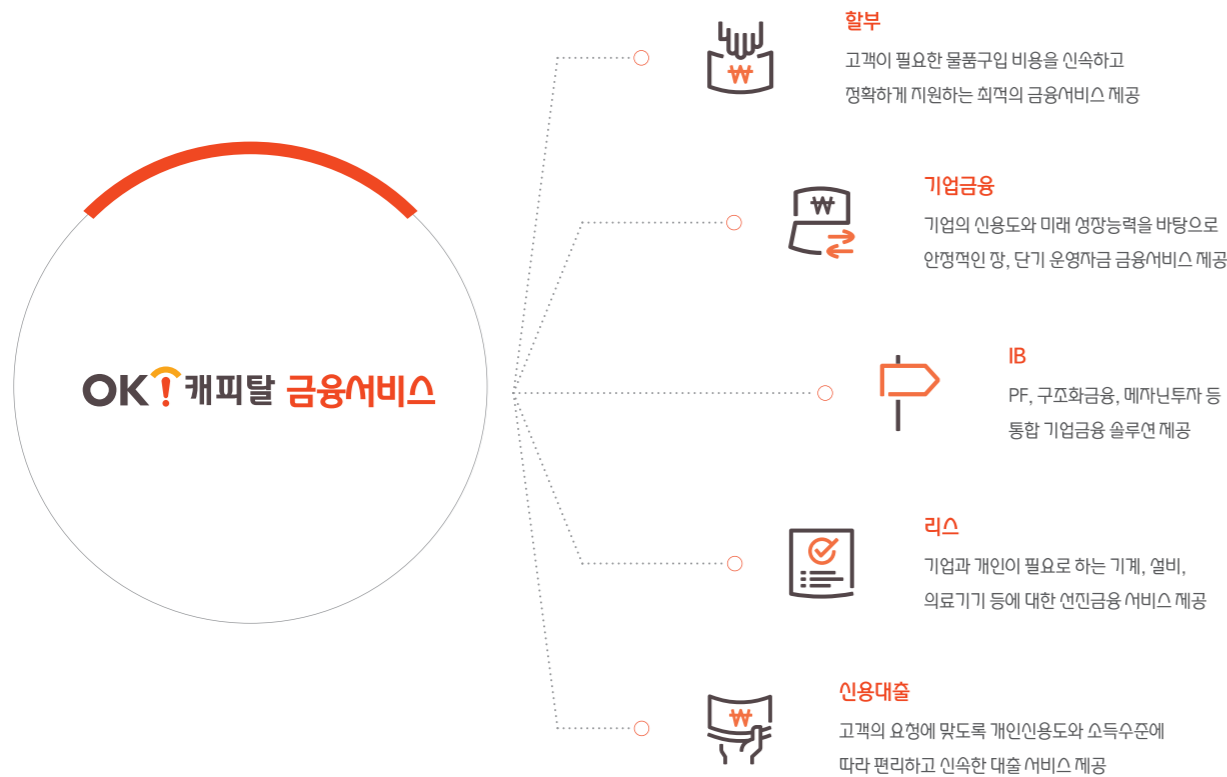
BIS 자기자본 비율 / 연체율 / 고령이하 여신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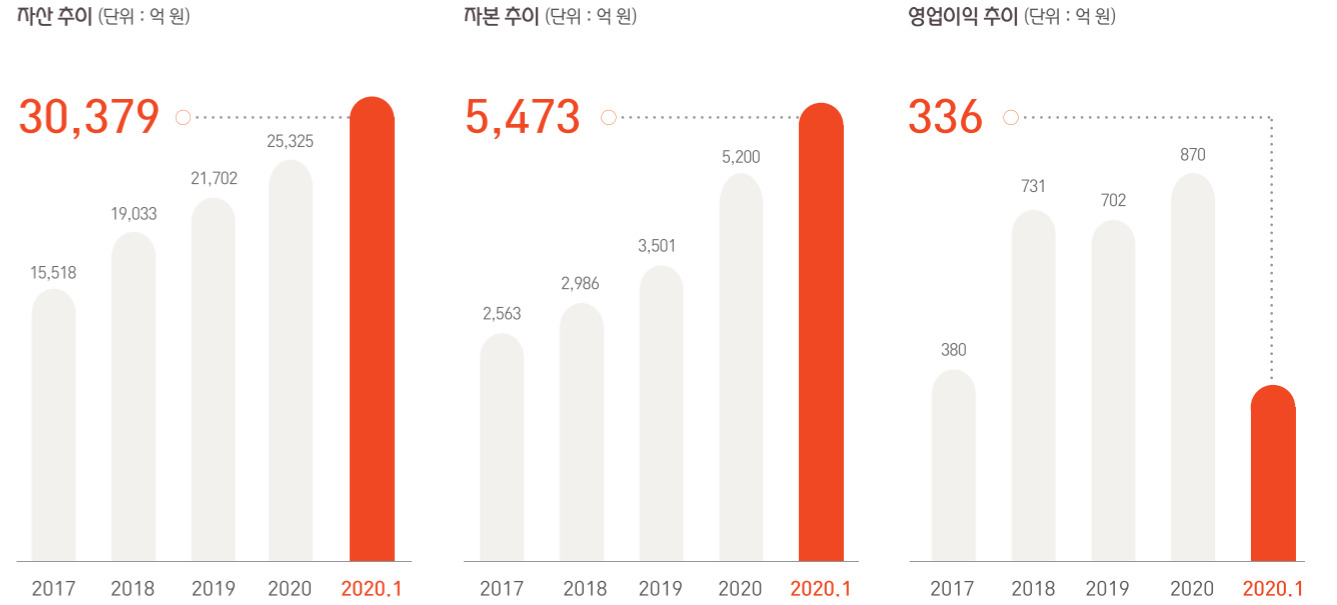
OK캐피탈은 일반리스, 할부금융, 기업금융 및 소비자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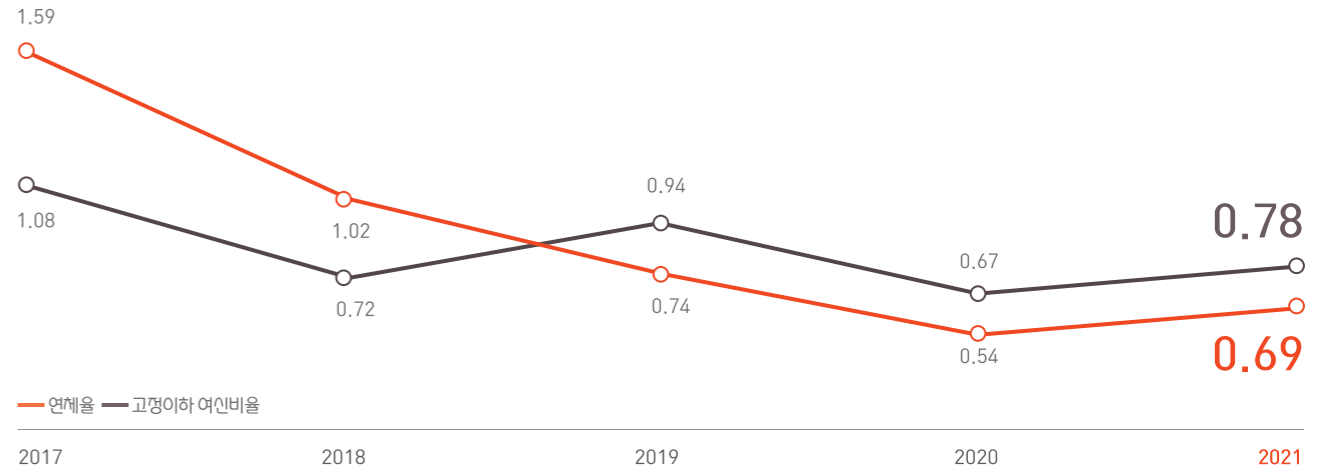
OK캐피탈은 지난 2016년 1월 OK금융그룹의 가족이 된 이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K캐피탈 경영지표 (2021년 6월 말)



연세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단위: %)



최윤의 도전... 저축은행 이어 캐피탈사 품다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은 2015년 5월 14일, 최윤의 대표가 이끌고 출범했다. OK저축은행은 OK캐피탈과 OK증권, OK저축은행을 아우르는 OK금융그룹의 핵심 사업이다. OK저축은행은 OK캐피탈과 OK증권과 함께 OK금융그룹의 3대 핵심 사업이다. OK저축은행은 OK캐피탈과 OK증권과 함께 OK금융그룹의 3대 핵심 사업이다. OK저축은행은 OK캐피탈과 OK증권과 함께 OK금융그룹의 3대 핵심 사업이다.

한국경제, 2015.05.14, 최윤의 도전... 저축은행 이어 캐피탈사 품다

OK캐피탈 '신용등급 A-'로 상향
 OK캐피탈(대표 김인환)은 한국 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2개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기평과 한신평은 △유상증자 후 자본 적정성 개선 △장기자금 조달 규모 확대에 따른 유동성 지표 개선 △우수한 수익성 및 건전성 유지 전망 등을 신용등급을 상향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해 OK캐피탈 총 자산은 2015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2조 5324억원을 기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com

내일신문, 2021.04.28, OK캐피탈 '신용등급 A-'로 상향

OK금융그룹은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금융서비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의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글로벌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OK금융그룹의 해외진출

OK금융그룹은 2012년 중국 천진을 교두보로 심천, 중경에 업계 최초로 현지 금융회사를 설립해 소액대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안다라은행, 캄보디아의 프놈펜 상업은행, 2018년 인도네시아 디나르은행을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는 베트남 현지 진출을 위해 시장연구 인력을 파견하며 현지 시장 현황 및 동향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현재 OK금융그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을 결정하고 최근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OK금융그룹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존중합니다. 각 지역에 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OK, 매일 더 점점 더 OK

- 2018.08 OK뱅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은행부문 건전성, 수익성 우수상 수상
- 2018.09 OK뱅크 인도네시아, 인포뱅크매거진 선정 최우수은행상 수상



APRO CHINA

- 2012.6.25 현진 영업개시
- 2013.5.13 현진 영업개시
- 2014.4.29 중경 영업개시

중국 (현진·심천·중경법인 / 여신전문회사)

OK금융그룹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진, 심천, 중경에서 각각의 금융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중국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금융소외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현재는 "질적 성장"의 사업 기조 하에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한 층 더 높은 성장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K BANK Indonesia

- 2016.11.14 안다라은행 인수
- 2018.10.23 디나르은행 인수

OK뱅크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OK금융그룹은 2016년 은행 인수 심사가 까다롭다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상업은행인 안다라은행 (현, OK뱅크 인도네시아)을 인수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 중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네 번째로, 비은행 금융회사 중 최초입니다. 2018년 10월, 디나르은행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하반기 OK뱅크 인도네시아와 디나르은행의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은행을 BUKU 1~4로 구분합니다. OK금융그룹은 안다라은행 인수 직후 증자를 통해 BUKU 2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하나가 된 OK뱅크 인도네시아는 리테일 및 SME에 중점을 둔 BUKU 3 증권은행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PPCB
Phnom Penh Commercial Bank

- 2016.08.10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

프놈펜 상업은행 (시중은행)

OK금융그룹은 2016년 8월 JB금융그룹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프놈펜 상업은행은 캄보디아 소재 39개 상업은행 중 자산 기준 10위 수준의 건실한 증권은행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총자산 약 1조 1,000억 원, 직원 약 470명의 프놈펜 상업은행은 수도 프놈펜 및 주요 거점 도시 등에 총 19곳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상업은행은 O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의 노하우를 접목해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유지,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축, 디지털 금융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은행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OK Fin

- 2020.02.04 오케이핀테크 (IT인프라) 설립
- 2020.12.15 오케이캐권매매사(NPL) 설립
- 2020.12.21 오케이핀(P2P) 설립

베트남

OK금융그룹은 금융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에 차별성 있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각 회사는 베트남 국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끊임없는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을 통해 향후 은행, 파이낸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

영업소

92개

센터

16개

OK저축은행, OK캐피탈,
OK신용정보, 러시앤캐시,
에스자산대부, 에스캐피탈,
OK뱅크 인도네시아,
프놈펜 상업은행,

OK저축은행

23개 지점

OK캐피탈

3개 지점

OK신용정보

13개 지점

OK F&I

2개 지점

YES ASSET

1개 지점

APRO CHINA PPCB OK BANK Indonesia

49개 지점

○ 서울

OK저축은행 9개 지점
본점, 이수, 노원, 연릉, 잠실, 동대문,
가산, 강남, 서울역, 회현

OK캐피탈 2개 지점
본점, 서울지점

러시앤캐시 1개 지점
본점

OK신용정보 1개 지점
본점, 영등포PL관리지점,
노원PL관리지점, 잠실PL관리지점

OK F&I 1개 지점
본점

에스자산대부 1개 지점
본점

○ 강원

OK신용정보 1개 지점
원주PL관리지점,

○ 충청

OK저축은행 4개 지점
천안, 영주, 대전, 대전중앙

OK신용정보 1개 지점
대전PL관리지점,

○ 인천, 경기

OK저축은행 7개 지점
분당, 수원, 안산, 일산,
평촌, 부평, 인천구월

OK신용정보 2개 지점
인천PL관리지점, 수원PL관리지점

○ 경상

OK캐피탈 1개 지점
부산

OK F&I 1개 지점
부산

OK신용정보 3개 지점
부산PL관리지점, 대구PL관리지점,
상원PL관리지점

○ 전라

OK저축은행 3개 지점
전주, 익산, 광주

OK신용정보 1개 지점
광주PL관리지점,

□ 센터

OK저축은행센터 6개 센터
통합디지털센터, 일반여신센터,
콜렉션센터, 통합접수센터,
온라인여신센터, 종합여신센터

OK캐피탈센터 3개 센터
통합디지털센터

OK신용정보 5개 센터
채권관리1센터, 채권관리2센터,
채권관리3센터, 채권관리4센터,
채권관리5센터(포항, 울산, 청주, 전주,
강릉)

러시앤캐시센터 4개 센터
P2P여신센터, 종합여신센터, 통합접수
센터, 콜렉션센터

○ 제주

OK신용정보 1개 지점
제주

국내외 네트워크

APRO CHINA

천진 1개
본점

심천 1개
본점

중경 1개
본점

OK Fin

베트남 3개 법인
OKFin(P2P)
OK DTC(NPL)
OK Fintech Vietnam(천안)

PPCB
Phnom Penh Commercial Bank

프놈펜 상업은행 23개 지점
본점 Khan Charmkarmon
지점 Boeng Trabaek, Chbar Ampov,
Koh Pich, Mao Tse Toung,
Preah Sihanouk Blvd,ou Ruessei,
Phsar Deum Kor, Bak Touk,
Calmette, Steung Mean Chey,
Heng Ly Market, Tuol Kork,
Teuk Thla, Chraoy Chongvar,
Saen Sokh, Kandal,
Kampong Cham, Kampot,
Kampong Thom, Sihanouk Ville,
Siem Reap, Battambang

OK BANK Indonesia

OK뱅크 인도네시아 20개 지점
본점 Jakarta
지점 Jakarta, Sudirman, Perniagaan,
Sunter, Palmerah, Bintaro,
Pluit, Denpasar, Mangga Dua,
Gading Serpong, Taman Ratu,
Semarang, Kelapa Gading,
Wahid Hasyim, Surabaya(I),
Surabaya(II), Candranaya,
Puri, Jembatan Lim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스포츠단 운영
스포츠 후원
OK배·정장학재단
사회공헌활동
사진으로 본 사회공헌활동

함께 나누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OK금융그룹은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OK배·정장학재단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스포츠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사회와 함께,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산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
ANSAN OK FINANCIAL GROUP OKMAN VOLLEYBALL CLUB



안산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은 최고의 경기력을 선사하는 동시에 팬과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명문 구단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성장하며, 국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 창단일 2013년 4월

계7구단으로 출범한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은 선수가 즐거워하고, 팬이 감동하며, 연고지가 자랑스러워하는 배구단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젊고 패기 넘치는 플레이와 차별화된 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구 경기의 감동과 행복을 실현하는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 History



2012, “어브를 낚다”

도전의 시작, 드림식스 네이밍 스폰, 그 이상의 지원을 보내다.

아무도 후회하지 않던 2012년 해계 위기의 드림식스 네이밍 스폰

2013, “블로킹에 막히다”

편견의 벽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도전정신, 신생구단을 창단하다.

네이밍 스폰을 넘어 구단 인수에 도전, 기존 구단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수 실패, 2013년 4월 편견을 넘어선 프로배구 계7구단 창단

2014, “진심을 토스하다”

연고지 안산의 아픔을 진심으로 끌어안다.

슬로건을 'We Ansan'으로 변경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위로



2015, “기적의 스파이크”

‘We Ansan’의 진정성으로 기적을 일으키다.

당시 프로배구 절대강자 삼성화재를 누르고 창단 2년만에 기적의 우승

2016, “또 한번의 OK! 스파이크”

새로운 정통, 낯을 버리고 새로운 정통을 들어올린다.

정규리그 우승팀 현대캐피탈을 누르고 창단 3년만에 V리그 2연패 달성

2020,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 구단명 변경

2020년 10월, 창립 20주년을 맞은 OK금융그룹은 프로배구단의 명칭을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으로 변경. 무한공정의 슈퍼히어로 '웃맨'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구단명은 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맨의 긍정기운을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겨있다.



안산 상록수체육관 전경



OK금융그룹 프로배구단 출정식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최윤 OK금융그룹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대한민국 도쿄올림픽 선수단이 지난 23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럭비협회 제공

최윤 OK금융 회장의 특별한 올림픽 참석

**재일교포 3세 출신 최윤 회장
한국 올림픽 선수단 부단장 맡아
조국 대표로 고향 올림픽 개막식에**

“나는 하루하루 고독한 경계인으로 살아 간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땅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는 ‘경계인을 넘어서’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금융 최고경영자(CEO)가 하나 있다.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3세 금융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최 회장은 스스로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산 ‘경계인’이라 불렀다. 최 회장이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에선 ‘외국인’으로 한국에선 ‘일본계 조선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서 ‘신라관’이란 음식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후, 한국으로 넘어와 자산 15조원 규모의 OK금융그룹을 키워낸 인물이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23일 막이 오른 ‘2020 도쿄올림픽’이 누구보다 특별하다. 최 회장이 한국 올림픽 대표 선수단 부단장으로 도쿄올림픽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금융인이 도쿄올림픽 선수단 부단장으로 나서기는 이례적이다. 특히 그가 태어난 이듬해인 지난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다. 그후 57년 만에 도쿄 올림픽이 맞게 됐다. 공교롭게 그의 나이도 57세다.

그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태어난 이듬해인 1964년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렸다”면서 “57년만에 다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만 57세의 나이로 올림픽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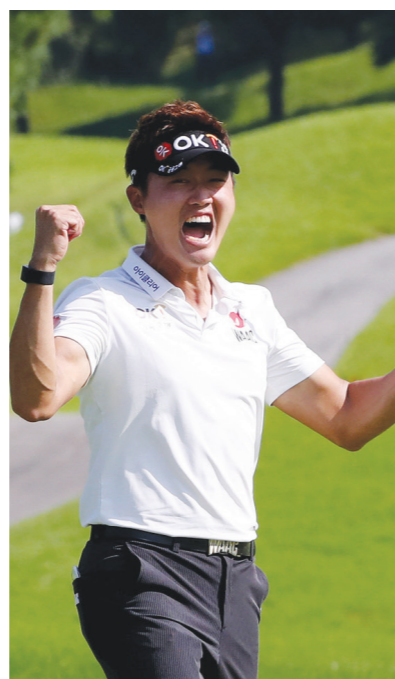
이번에 최 회장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도쿄 2020! 어게인 2002!’란 문구도 직접 생각해낸 정도다. 여기엔 악화일로인 한일관계가 지난 2002 한일월드컵때 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최 회장은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출국하기 전날인 지난 19일 OK금융그룹 전 임직원에게 도쿄올림픽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배포했다. 그는 “이번 도쿄올림픽은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재일교포 3세로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조국 대한민국의 올림픽 선수단 부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는 감동을, 750만 해외동포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재일교포 3세 유도선수 안창림이 메달을 획득할 경우 포상금(금메달 5000만원, 은메달은 3000만원, 동메달은 1000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지영 기자



OK금융그룹은 다양한 스포츠 후원을 통해 선수에게는 응원의 힘을, 국민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OK금융그룹은 땀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OK금융그룹은 2010년 KPGA 정규투어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제1회 ‘라시안캐시 행복나눔 클래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골프를 통해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5회부터는 국민 영웅 박세리 감독과 손잡고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이라는 타이틀로 변경해 명실공히 국내 메이저 골프대회로 자리잡았습니다. 2010년부터 참가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상금 중 10%를 기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회 주최사인 OK금융그룹도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미래 우수 골프 인재 양성 및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 골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은 국내외 팬, 참가선수, 대회 관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프로농구 선수단 네이밍 후원

OK금융그룹은 여자프로농구(WKBL) 구단을 대상으로 네이밍 후원했습니다. 후원 기업을 잃고 당시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KDB위너스는 2018-19시즌 ‘OK저축은행 옷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WKBL 리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손을 내밀었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선동열배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OK금융그룹과 농아인의 인연은 ‘국보급 투수’ 선동열 야구 국가 대표 감독 덕분에 시작됐습니다. OK금융그룹은 선 감독을 통해 국내 농아인들을 위한 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2009년 발달지체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충주 생심학교의 야구부에 운동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를 만들어 매년 이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개최 10주년이 되던 2019년부터 ‘선동열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녀 필드하키 국가대표 후원

OK금융그룹은 2012년부터 대한민국 남녀하키 국가대표팀을 후원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필드하키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국가대표팀 금메달, 남자국가대표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가대표 선

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후원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필드하키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종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럭비 국가대표 후원

OK금융그룹은 2016년부터 럭비 꿈나무와 남녀 럭비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최윤 회장이 대한럭비협회장으로 취임하며, 럭비 국가 대표팀 후원 뿐만 아니라 럭비 유망주 장학금 지급과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 ‘OK금융 럭비팀’ 운영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OK저축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럭비 특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한국 럭비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프로골퍼 이태희

2011년부터 OK저축은행과 함께하고 있는 이태희 프로는 2006년 코리아투어에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5년 헤리티지에서 10년만에 우승의 감격을 맛본 동시에, 총 5개 대회에서 Top 10에 진입해 최고의 영예인 KPGA 대상을 품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고 규모 대회인 2018 세네시스 챔피언십, 2019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2020 GS칼텍스 매경 오픈 2연패를 달성하며, 코리아투어 통산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안창림

‘Original Korean’ 안창림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유도를 시작했지만, 일본 국가대표 계의를 뿌리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획득하는 등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이자 남자 유도의 간판스타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과 인연을 맺은 안창림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남자유도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유도 안창림 동메달 뒤편 '최윤 부단장' 있었다

(OK금융그룹 회장)

재일동포 안 선수 5년간 후원

한국 남자 럭비대표팀은 사상 첫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5전 전패를 기록했지만 럭비 강국을 상대로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일본 유도 연맹의 귀화 요청을 거절하고 태극마크를 선택한 재일동포 3세 유도선수 안창림은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가대표들이 이런 성과와 감동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

는 최윤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OK금융그룹 회장·사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재일동포 3세 출신 금융인인 최 부단장은 5년 전부터 안창림 선수를 후원해왔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주변인'의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단장은 지난 2월부터 대한럭비협회장을 맡으며 럭비 국가대표들의 훈련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금은 선수단 부단장 자격으로 경기장을 누비며 선수들 뒷바라지를 하

고 있다. 이번 올림픽의 '숨은 공로자'로 꼽히는 최 부단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통역, 음식 등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뒷받침하려고 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제약이 많아 원래 하려던 일의 5분의 1도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1963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최 부단장은 1999년 한국으로 건너와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업계 2위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을 포함해 총자산 15조원 규모의 OK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인혁 기자



OK금융그룹은 다양한 스포츠 후원을 통해 선수에게는 응원의 힘을, 국민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OK금융그룹은 땀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OK금융그룹은 2010년 KLPGA 정규투어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제1회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클래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골프를 통해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5회부터는 국민 영웅 박세리 감독과 손잡고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이라는 타이틀로 변경해 명실공히 국내 메이저 골프대회로 자리잡았습니다. 2010년부터 참가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상금 중 10%를 기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회 주최사인 OK금융그룹도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미래 우수 골프 인재 양성 및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 골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은 국내외 팬, 참가선수, 대회 관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프로농구 선수단 네이밍 후원

OK금융그룹은 여자프로농구(WKBL) 구단을 대상으로 네이밍 후원했습니다. 후원 기업을 잃고 당시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KDB위너스는 2018-19시즌 'OK저축은행 옷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WKBL 리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손을 내밀었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선동열배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OK금융그룹과 농아인의 인연은 '국보급 투수' 선동열 야구 국가 대표 감독 덕분에 시작됐습니다. OK금융그룹은 선 감독을 통해 국내 농아인들을 위한 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2009년 발달지체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충주 성심학교의 야구부에 운동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를 만들어 매년 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 10주년이 되던 2019년부터 '선동열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녀 필드하키 국가대표 후원

OK금융그룹은 2012년부터 대한민국 남녀하키 국가대표팀을 후원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필드하키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국가대표팀 금메달, 남자국가대표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가대표 선

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후원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필드하키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종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비인기스포츠 럭비 후원

OK금융그룹은 2016년부터 럭비 꿈나무와 남녀 럭비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최윤 회장이 대한럭비협회장으로 취임하며, 럭비 국가 대표팀 후원 뿐만 아니라 럭비 유망주 장학금 지급과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 'OK금융 럭비팀' 운영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OK저축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럭비 특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한국 럭비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프로골퍼 이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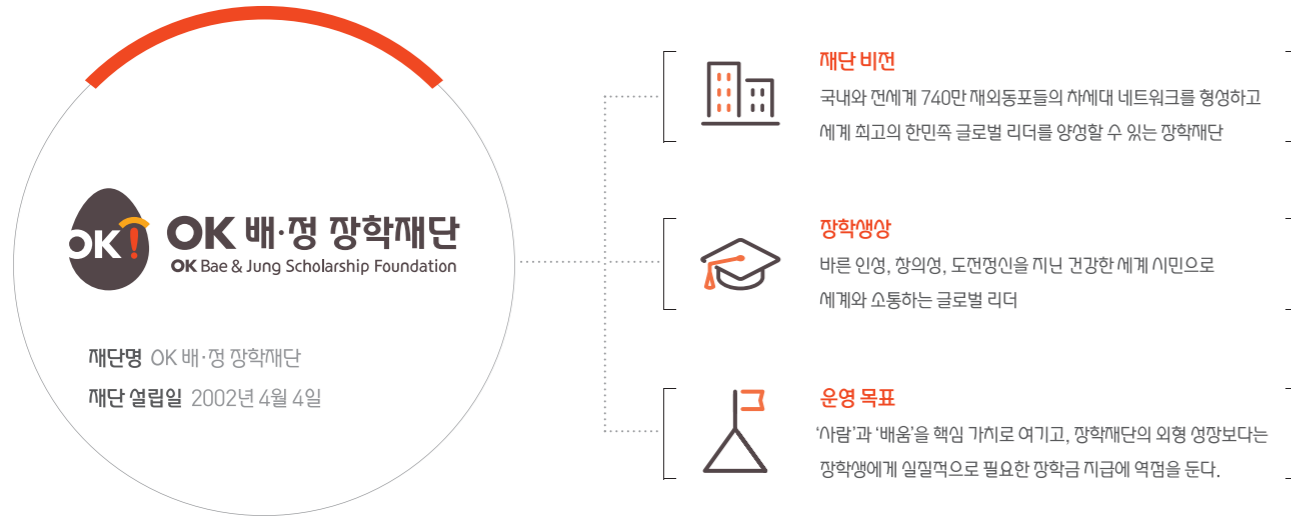
2011년부터 OK저축은행과 함께하고 있는 이태희 프로는 2006년 코리아투어에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5년 헤리티지에서 10년만에 우승의 감격을 맛본 동시에, 총 5개 대회에서 Top 10에 진입해 최고의 영예인 KPGA 대상을 품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고 규모 대회인 2018 제네시스 챔피언십, 2019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2020 GS칼텍스 매경 오픈 2연패를 달성하며, 코리아투어 통산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안창림

'Original Korean' 안창림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유도를 시작했지만, 일본 국가대표 제의를 뿌리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획득하는 등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이자 남자 유도의 간판스타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과 인연을 맺은 안창림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남자유도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OK배·정장학재단은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국내·외 많은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OK배·정장학재단은 나눔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OK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비전 하에, 장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학생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차세대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OK배·정리더십코스 등 장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유대 강화의 장을 마련하며, 장학생과 재단이 평생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현황



OK생활장학금

등록금을 해결했으나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대학생, 대학원생(석사/박사)에게 최대 4년간 최대 8,000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



OK희망장학금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최대 5년간 생활비 지원, 매월 중학생 20만 원/고등학생 25만 원



OK글로벌장학금

전세계 740만 해외 동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일본/미국/중국/인도네시아 등)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공개연발 또는 협력기관/학교 추천 방식으로 진행



OK스포츠장학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운동하는 스포츠(골프/배구/럭비 등) 꿈나무 학생을 선발하여 우수 유망주로 육성, 공개연발 또는 협력기관 추천 방식으로 진행

총 장학생 수 (2021년 12월 예상치)

7,000명

프로그램 비용 비율 (2021년 12월 예상치)

96.7%

총 장학금 지급액 (2021년 12월 예상치)

210억원

한국 경제 2020년 5월 7일 주요일.

34개 해외 한국학교장 감사패 받은 최윤 OK금융 회장 "교육 받아야 현지어 인정... 한국인 자긍심 갖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 인어 자긍심을 갖길 바랍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57·사진)은 6일 서울대 재외교육지원센터에서 16개국 34개 한국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재외 한국학교와 국내 학교에 100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한 최 회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 탓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희망'과 '진정성'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3세대. 그는 일본에서 '신라관'이란 불고기 전문 음식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60개 지점까지 늘릴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한국에 진출한 뒤 '리서먼케이션'을 앞세워 자산 12조원 규모의 OK금융그룹을 키워냈다. 최 회장의 삶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이니치(在日-일본 거주 한국인)라는 이유로 현지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당했다"고 했다. 교육만이 현지 사회에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원동력인 신념을 갖고 재외동포를 후원하게 된 이유다. 그가 장학사업을 시작한 건 2002년부터다. 최 회장은 당시 대한민국 사람의



에 있는 4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지금까지 약 1000명의 재외동포에게 26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재외 한국학교의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최초의 재외 한국학교인 오사카 금강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사카 금강학교는 재일동포 1세대가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1946년 설립한 초·중·고교다. 1961년 한국 최초의 재외 한국학교로 지정됐고, 1985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학교'로 인가받았다. 오사카 금강학교는 학생수가 꾸준히 줄면서 통폐합 위기에 몰렸다. 2006년 400명에 육박하던 학생 수는 2018년 200명까지 감소했다.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5.8명에 불과했다. 최 회장은 이사장직을 맡아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이유다. 최 회장은 "금강학교가 민족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반드시 개혁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고 했다. 그가 은 이후 오사카 금강학교의 학생 수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그는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해 한국과 일본의 기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hankyung.com

수상 내역

2008.12	승일대학교 감사패	2013.02	중주성심학교 감사패	2015.05	오사카 총영사관 감사패	2017.06	한양대학교·경기대학교 President's Honor's Club
2010.04	서울대학교 감사패	2015.02	경기대학교 감사패	2016.03	본국투자협회 감사패	2018.05	서울대학교 감사장
2010.05	서울대학교 감사패		고려대학교 감사패	2016.05	코리아국제학교 감사패	2019.06	비영리재단 국민 감사패
	하와이대학교 감사패		안산시 감사패	2016.06	주 일본대사 감사패	2020.05	연세대학교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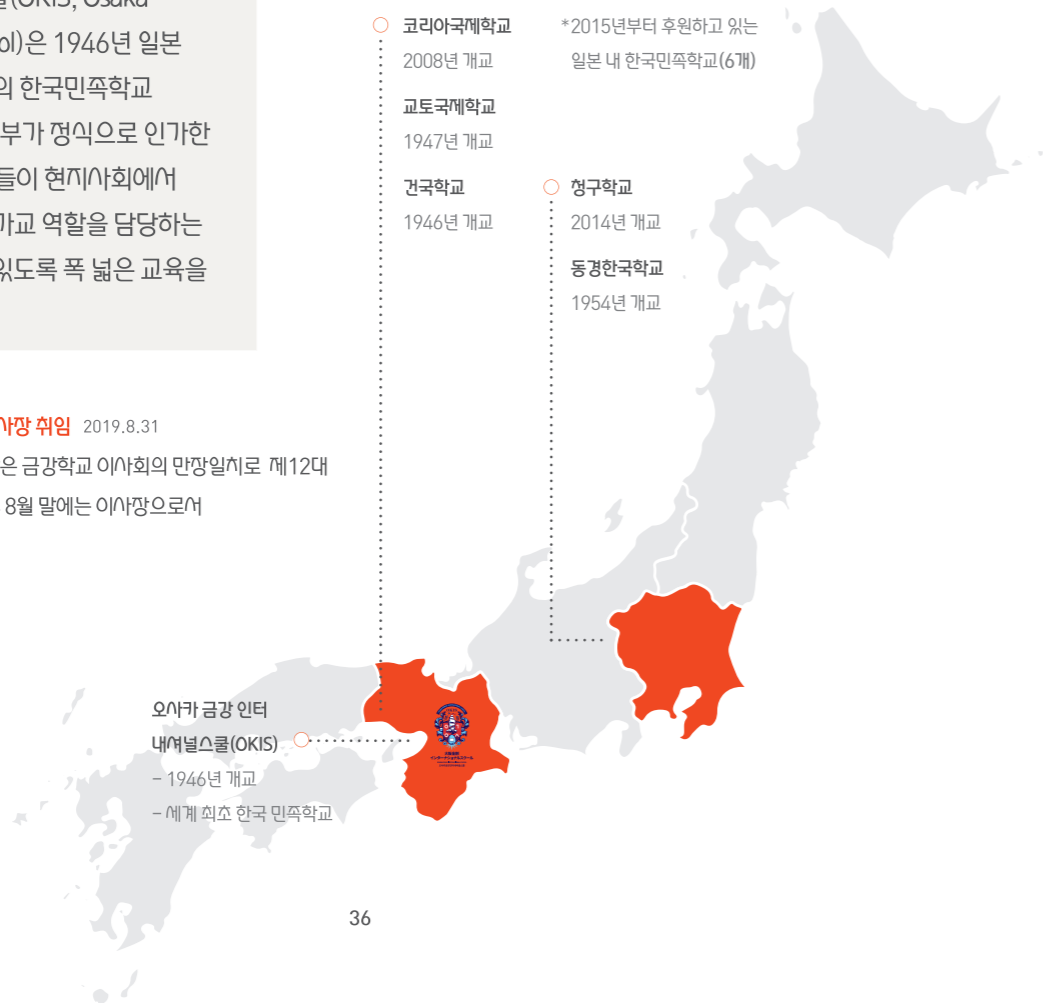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스쿨(OKIS) 소개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스쿨(OKIS, Osaka Kongo International School)은 1946년 일본 오사카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한국민족학교입니다. 한국·일본 양국 정부가 정식으로 인가한 정규학교로, 한민족 꿈나무들이 현지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해 양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K금융그룹 최윤 회장, 금강학교 이사장 취임 2019.8.31

2019년 6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은 금강학교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제12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8월 말에는 이사장으로서 정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 코리아국제학교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일본 내 한국민족학교(6개)
2008년 개교
- 교토국제학교
1947년 개교
- 건국학교
1946년 개교
- 형구학교
2014년 개교
- 동경한국학교
1954년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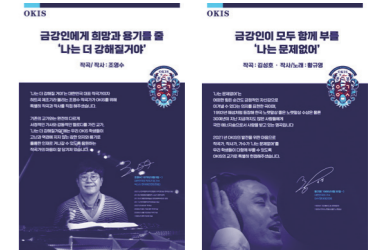
새로운 이름으로 단장한 OKIS와 스쿨버스



大阪金剛
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
OSAKA KONGO INTERNATIONAL SCHOOL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



OKIS 교가기증 명패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 입구교가 포스터

“세계 최초의 재외국민 한국학교를 넘어 글로벌 명문 사학을 향해”

OK배·정장학재단은 OKIS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육성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학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사업,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세계 최초의 재외한국학교인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스쿨(OKIS)이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교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강학교 교명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스쿨(OKIS)'로 변경 2021.4

금강학교는 최윤 이사장 취임 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민족 교육을 통해 명실공히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로 다약한다'라는 궁극적 설립 목표 아래 '학교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초 새학기 시점에 발맞춰 교명을 기존 오사카 금강학교에서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스쿨(OKIS)'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금강인으로서 자인감과 자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가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획기적인 커리큘럼 개편이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트라이링구얼(Trilingual)' 수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년별이 아닌 학생 개인의 어학능력 수준에 맞춘 무학년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정규과목 진행 시에도 한국어·영어 등 이머징 교육을 시행하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방과후 교육 운영 등 글로벌(Glocal)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외국어 집중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원어인 강사 및 우수 교육을 대폭 증원해, 언어 학습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교복 △스텝 △교기 △건물 외벽간판 △스쿨버스 래핑 등의 대대적인 SI 개편작업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함께하기에 더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

OK금융그룹은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전국의 많은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K와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

OK금융그룹은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계열사와 함께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만장을 기부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외한국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 여전히 '시민의 발'이 되어 맘을 리시는 택시기사님들을 위해 바이오OK마스크를 20만장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OK금융그룹의 관심과 노력은 고객과 임직원에게도 꾸준히 힘이되어왔습니다. OK저축은행 고객에게 위생키트와 시설편방역 장비를 지원하는 가 하면, 원격수업 대상 자녀 가족 임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등 OK금융그룹은 '사회·고객·임직원' 모두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책임·투명경영) OK!

OK캐피탈은 지난 6월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ESG 해권'을 대규모 발행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 해권을 통해, OK캐피탈은 조달한 자금을 △ 청년주택 개발 사업 관련 대출 △ 공공 지원 임대주택 개발 사업 관련 대출 △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리스 및 할부금융

△ 스타트업·벤처기업 대상 시설자금 대출 등에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OK저축은행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모든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공해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OK! 행복나눔 봉사단

OK금융그룹은 전국 각 지역의 양로원, 지체장애인 시설, 보육시설 등과 판매결연을 맺고, 따뜻한 온정 나누기를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임직원들은 분기에 한 번씩 시설을 방문해 직접 봉사를 실천합니다. 2019년에는 '사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전통시장에서 생필품 및 식재료를 구입, 저소득층 가정에 선물하는 '사랑의 장바구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말 사회공헌대축제

OK금융그룹은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연말사회공헌대축제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룹 임직원 3,000명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연탄과 직접 담근 김치, 손수 제작한 사랑의 키트를 나누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충원 봉사



분기별 사회공헌 활동



1사1촌 농촌사랑 봉사활동



OK행복나눔봉사단



사진으로 본 사회공헌활동



~2004 미혼모센터 아이돌봄 봉사



2005 러시앤캐시 사랑나눔봉사단 결성



2006 제1기 장학증서 수여식



2008 OK글로벌장학생 후원사업 시작



2010 러시앤캐시 캐리티클래식(행복나눔 클래식) 1회



제1회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개최



농촌사랑 1사1촌 가매결연 & 봉사활동



2012 행복나눔장학금 시상 (2012~2016)
* 사진은 2016년 1연령 사진



대한하키협회 후원 시작

사진으로 본 사회공헌활동



2013 연말 사회공헌 대축제 개막



중주성심학교 야구팀에 실내연습장 기증



2014 중국 현지장학생 첫 선발



2015 일본 6개 한국민족학교 지원 시작



프로배구단과 함께하는 안산 어르신 초청 행사



사랑의 의류 바가지



2015 세리키즈 골프장학생 선발 시작



2016 대학생 럭비선수 장학금 후원



2017 남산공원 OK동산 만들기

사진으로 본 사회공헌활동



인도네시아 해외연수(봉사활동)



지구촌사랑나눔 물품기증



효종교 릴레이 벽화 봉사



2018 생활강학당 '배·정리더십코스' 진행



2019 日 금강학원 MOU 체결 및 이사회 취임



글로벌 인재 장학금 후원 시작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100만 장 기부



2020 럭비 꿈나무 육성 위한 교육 기저재 기부

OK금융그룹은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 대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 그룹으로써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